

영적 어둠에 대한 마더 데레사의 체험과 이해

심 종 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영성신학)

김 기 숙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영성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마더 데레사의 영적 어둠 체험
 1. 전환과 어둠 체험의 시작
 - 1)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상실의 외로움
 - 2)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무력감
 - 3)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공허감
- III. 영적 어둠의 내적 의미
 1. 헌신으로 이끄는 단순한 믿음
 - 1) 하느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 2) 사랑에 뿌리를 둔 굳센 의지
 2. 고통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
 - 1)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목마름
 - 2) 가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
 - 3) 철저한 자기부정과 애덕 실천
 3. 애덕 실천을 통한 의지의 정화와 자아실현
 - 1) 항구한 기도
 - 2) 철저한 순종
 - 3) 실천적 충실
 4. 절대적 신뢰를 통한 완전한 기쁨
 - 1) 정체성 인식을 통한 자아수용
 - 2) 이웃사랑으로 이끄는 섬김과 나눔의 겸손
 - 3) 무소유와 부유함
- IV. 나가는 말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jhsim@sogang.ac.kr

I. 들어가는 말

“만일 제가 성인이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인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빈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는 한평생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게 헌신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도, 실상 자신의 내면에서는 하느님의 부재¹⁾ 속에서 극심한 내적 메마름을 겪는 매우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 브라이언 콜로디츠크(Brian Kolodiejchuk) 신부에 의해 2007년 출간된²⁾ 그녀의 글들 속에는 새로운 수도공동체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그녀가 영적 어둠을 겪으며 내적 메마름으로 인해 하느님 존재에 대한 의혹, 천국에 대한 공허감, 고난의 무가치함 등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녀는 왜 그런 영적 어둠을 겪게 되었으며, 또 그런 영적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미소와 헌신으로 가난하고 병든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내적 메마름은 그녀의 영혼에 어떤 작용을 했고, 그녀의 영적 삶을 어떻게 인도했을까? 또 그녀의 영적 어둠 체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깨움을 전해주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기초로 마더 테레사의 영적 어둠 체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그녀에게 투영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어둠에 반응했고 수용해갔는지를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둔 밤’의 신학을 참조하여 살펴봄으로써, 그녀의 어

1) 이 글에서 ‘하느님의 부재’ 혹은 ‘하느님 부재 체험’ 등의 표현은 마더 테레사가 ‘하느님이 계시지 않음’을 체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음’ 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체험함을 의미한다.

2) Brian Kolodiejchuk (ed), *Mother Teresa Come Be My Light: The Private Writings of the Nobel Peace Prize Winner*, London: Rider, 2008; (한글) 브라이언 콜로디츠크,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Come Be My Light): 켈커타 성녀의 비밀스런 글』, 허진 옮김, 오래된 미래, 2008.

덤 체험이 갖는 내적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콜로디척 신부의 『나의 빛이 되어라(Come Be My Light)』에 소개된 마더 테레사의 서간 및 영적 조언자들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그녀의 영적 어둠 체험과 반응들을 분류하고 해석해보고자 한다.³⁾

II. 마더 테레사의 영적 어둠 체험

1. 전환과 어둠 체험의 시작

마케도니아 스코페(Skopje)의 가톨릭 가정에서 출생한 마더 테레사(Agnes Gonxha Bojaxhiu, 1910.8.26~1997.9.5)는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삶을 꿈꾸었다. 1928년 18세 나이로 당시 로레토 수녀회(Sisters of Loreto)로 알려진 동정성모회(IBMV)에 입회하였고, 1929년에는 인도 캘커타에 로레토 수녀회가 운영하는 성모여고에 역사/지리 교사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1948년 ‘사랑의 선교회’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년 동안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로레토 수녀원에서는 안정된 생활과 교사로서의 자부심으로 행복했으며, 기도와 관상, 격려와 긍정 속에서 영적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종종 보게 된 수녀원 밖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그녀에게 적잖은 갈등으로 다가왔고, 결국 안정된 로레토 수녀원과 학교의 틀레를 나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⁴⁾

그녀는 1946년 9월 10일 연례피정을 위해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

3) 영적 어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가 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둠 밤’의 신학적 측면을 바탕으로 마더 테레사의 영적 어둠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Richard Upsher Smith Jr., “‘Behold a Pale Horse’ Blessed Mother Teresa of Calcutta and the ‘Experience of Nothingness’”, *Logos: A Journal of Catholic Thought and Culture*, 16/1(2013), pp.70~82; James I. Packer, “Holiness in the dark”, *Crux*, 44/3(2008), pp.31~39; Phyllis Zagano·C. Kevin, “Embracing darkness: a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case study of Mother Teresa”, *Spiritus*, 10/1(2010), pp. 52~75.

4) Craig Watts, 『마더 테레사: 어둠 속 믿음』, 안소근 옮김, 바오로딸, 2010, 41쪽.

안에서 가장 어둡고 누추한 곳으로 가서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한다.⁵⁾ 마더 테레사는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인 친밀감 속에서⁶⁾ 부르심에 기쁨과 확신으로 응답하며 동정성모회 수녀로서, 또 교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1948년 12월 21일 캘커타 빈민가로 들어갔다. 이후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여 선종시까지 반세기 동안 종교와 종파에 관계없이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했다.

역설적인 것은 새로운 수도공동체(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한 1949~50년경부터 수십 년 동안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느님의 무응답과 부재 느낌으로 극심한 내적 메마름 속에 살았다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의 다음 고백은 그녀가 겪었던 내적 메마름의 모습과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부님, 49년이나 50년 이래로 이 끔찍한 상실감, 말할 수 없는 어둠, 외로움,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괴롭혔습니다. 어둠은 너무나 심해서 저는 마음으로도 이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제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 ... (중략) ... 하느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 영혼, 왜 이것들은 단지 말일 뿐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제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⁷⁾

그녀는 이 내적 메마름으로 인해 신앙도, 사랑도, 그리고 열정마저

5)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102쪽.

6) “신부님, 로레토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수녀였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셨고 그 목소리는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29쪽; “주님께서 제 삶에 완전히 들어오시기 전까지 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의 중심이었습니다. 신부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도 저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돌보지 않으시더라도 말입니다.”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2쪽.

7) 1961년 4월 사랑의 선교회 연례 피정 때 마더 테레사가 요셉 노이너 신부(Joseph Neuner)에게 한 고백,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0쪽.

도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 마치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 들곤 했다고 한다.⁸⁾ 이처럼 마더 테레사는 오랜 기간 동안 하느님 부재를 겪는 상실의 외로움, 열정의 무력감, 희망에 대한 공허감으로 영적 어둠에 처해 있게 되었다.

1) 라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상실의 외로움

마더 테레사의 초기의 글들은 하느님 부재 체험으로 인한 ‘버려짐’, ‘거부당함’, ‘쓸쓸함’, ‘차가움’, ‘멀어짐’ 등과 같은 삭막하고 메마른 감정들을 호소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⁹⁾ 사랑의 선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모여든 이들을 위하여 숙식을 마련하고, 주변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녀는 새로운 삶이 가져다주는 고통 앞에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선교 사목이 불가능함을 절실히 느끼며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 매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의 성공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기도와 영적 실천이 무의미해지고 하느님의 모든 위로가 사라지는 듯한 상실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1956년 그녀는 페리에 대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렸다.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 (중략) ... 제가 예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예수님은 저를 덜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과 떨어진 느낌, 끈직한 공허함, 하느님이 제 옆에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¹⁰⁾

처음에 페리에 대주교는 그녀가 말하는 고통을 새로운 수도회 설립에 따른 전반적인 어려움의 호소로 생각하고 그녀의 성급한 성격을 지적하였다. 마더 테레사도 자신의 내적 어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8) 페리에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67쪽, 277쪽.

9)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43쪽, 249쪽, 257~258쪽, 267쪽, 284쪽.

10)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57~258쪽.

못했기 때문에 페리에 대주교의 조언에 순명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통들 때문에 초반에는 페리에 대주교 및 피카키 신부 그리고 후반에 들어서 노이너 신부, 미카엘 판 데어 페트 신부 등 극소수 예수회 사제들과 교류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트레버 피카키(Trevor Picachy) 신부에게 보낸 다음의 기도문은 그녀가 겪는 어둠과 그에 따른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저의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버리십니까? 당신 사랑의 자녀인 제가 이제 가장 미움 받는 자녀, 당신께서 원치 않아 버리시는 자녀,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애타게 부르고 매달리며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매달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어둠은 너무나 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으며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 (중략) ... 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깊은 곳, 저 깊은 곳에도 공허함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저의 하느님, 이 알 수 없는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끊임없이 아플 뿐입니다.¹¹⁾

사랑의 선교회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 세상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것에서도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한 채 홀로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¹²⁾ 점차 하느님 부재 체험은 “마음으로도 이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녀의 감각에 깊게 자리 잡았다. 모든 것이 허탈해지고 마치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비참함과 외로움으로 급기야 그녀는 “제 영혼에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¹³⁾라고 고백할 지경에 이른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었기에 하느님 부재 체험으로 겪는 상실의 외로움과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컸을 것이다.

11)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94~295쪽.

12)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74쪽.

13)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0쪽.

2)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무력감

하느님의 부재 체험은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을 돕고자 하는 마더 테레사의 불타는 열정을 허탈하고 맥 빠지게 만들기도 했다. 영혼은 하느님만을 통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만이 영성생활의 중심 동기이고 완성이기에 하느님 사랑의 부재로 겪는 열정의 무력감 속에서 다른 영혼을 돕는 것이 그녀 자신에겐 지극히 무의미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가 집을 떠나고 로레토를 떠나게 했던 많은 영혼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에 대한 사랑, 그 누구에 대한 사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느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깊고 친밀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¹⁴⁾

비록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구제 활동 등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지만 사실 그녀는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무력감으로 어떤 위안도 기쁨도 얻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가 빈민가에서 보내는 일상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의 나날이었다. 어떤 위안도 도움의 손길도 없이 하느님의 침묵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녀의 현실은 마치 물에 빠졌지만 잡을 것이라고는 지푸라기밖에 없는 사람처럼 절박함과 무력감으로 짓눌려 있었다. 다음은 노이너 신부에게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체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이 간절히 가지고 싶어 하는 하느님을 제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중략) ... 안에서도 밖에서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영적 도움뿐 아니라 사람의 도움까지 모두 거두셨습니다. ... (중략) ... 하느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지요? ... (중략) ... 저는 물에 빠졌지만 붙잡을

14)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18쪽.

것이 지푸라기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런 확신에 매달립니다.¹⁵⁾

사랑과 봉사에 대한 기쁨과 격려 등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속에서 겪은 다르질링행 기차에서의 전환 체험 이후 다가온 하느님의 부재 체험은 예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녀가 느끼는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켜, 그녀는 끔찍할 정도로 모든 일에서 무력감에 직면하는 내면의 변화를 겪었다.

3)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공허감

하느님의 부재 체험은 믿음과 천국에 대한 마더 데레사의 희망까지도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듯하다. 1959년 9월 3일 피카키 신부에게 쓴 고백의 일부에서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도 공허감과 어둠 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그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마치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로 겪는 지옥의 고통과 같다고 낙담과 좌절을 드러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잃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하느님을 가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것처럼 끔찍한 상실의 고통을 영혼으로 느낍니다. ... (중략) ... 하느님께서 안 계신다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 당신도 진실은 아니겠지요. 천국은 얼마나 공허한가요. 천국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도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¹⁶⁾

위와 같이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천국에 대한 공허함, 즉 희망의 상실은 그녀의 삶을 지옥과도 같은 고통에 처하게 했다. 희망은 계시 진리와 하느님을 바라는 실천적 행위이다. 희망이 있다면 하느님께 눈길을 두고 믿음의 도움으로 사랑을 실천해가겠지만, 그녀는 희망이

15)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90쪽.

16)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03~304쪽.

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켈커타의 가장 어둡고 누추한 곳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 또한 하느님에 대한 희망의 부재로 공허해지는 어둠의 감정들을 직면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제 영혼은 너무 많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갈망은 너무 깊어서 고통스러울 정도이고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느님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됩니다. 거부당하는 느낌에 공허함까지 계속되어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없습니다. 영혼도 저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천국이라는 것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느님을 향하여 고문과도 같은 갈망은 계속됩니다.¹⁷⁾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 체험으로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신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없고 천국에 대한 희망마저 없는 자신의 두 가지 모순된 모습에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III. 영적 어둠의 내적 의미

마더 테레사의 편지와 사적인 글들에 나타난 영적 어둠은 하느님에 대한 깊은 갈망 가운데 하느님 부재 체험으로 인한 상실의 외로움, 열정의 무력감, 희망의 공허감이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욱더 하느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가난한 이들과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었다. 극심한 영적 어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간직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그토록 오래 변함없이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녀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이 가능했다고 증언한다. 비록 그녀의

17)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67쪽.

어둠 체험이 철저한 의심의 형식을 취하여, 자신의 은혜 상태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과 심지어 하느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지만,¹⁸⁾ 그녀의 영성생활에서 하느님 부재 체험이라는 어둠은 오히려 ‘어둔 밤’으로서 영적 성숙을 위한 용광로 역할을 하였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였다는 것이다.¹⁹⁾ 하느님은 이 도구를 통해서 그녀를 세상의 가장 깊은 무의미함과 고독의 빈곤 속으로 다가가게 했으며, 그 심연 속에서 당신과 일치되는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이는 그녀가 내적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간직하고 꾸준한 기도와 철저한 순종, 충실로써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며 믿음, 희망, 사랑을 오랫동안 실천하며 살았다는 사실로 반증된다. 따라서 그녀의 어둠 체험은 심신을 약화시키고 확신과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하는 ‘의심’의 체험이 아니라,²⁰⁾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성령께서 보다 밀접히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었다.

그녀의 글들과 영적 조언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그녀의 내적 메마름의 체험과 반응들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제시한 ‘어둔 밤’의 체험으로 볼 수 있다.²¹⁾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하면 하느님은 당신과의 온전한 일치를 위하여 영혼으로부터 감각적인 위로와 영적 요람을 거

18) Richard Upsher Smith Jr., “‘Behold a Pale Horse’ Blessed Mother Teresa of Calcutta and the ‘Experience of Nothingness’”, *Logos: A Journal of Catholic Thought and Culture*, 16/1(2013), p.80.

19) 요셉 노이너 신부는 마더 테레사의 어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심각한 잘못으로 영적 메마름을 겪었다고 달리 설명할 만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성 생활에 밝은 사람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는 어둔 밤일 뿐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어둔 밤이 몇 십 년 동안이나 그토록 깊이 지속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 (중략) ... 어둠 속에 하느님이 숨어 존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 하느님의 빛을 단 한 줄기 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느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간절히 바랄 수 없습니다.”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5~336쪽.

20) James I. Packer, “Holiness in the dark”, *Crux*, 44/3(2008), p.38.

21) 위아르 신부는 1985년 사랑의 선교회 총회 때, 마더 테레사와 내적 어둠을 듣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에게는 완벽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둔 밤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80쪽.

두시고, 영혼을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로 버려두심으로써 영혼 속으로 침잠하신다고 한다.²²⁾ 이는 하느님이 영혼에게 감각의 달콤함을 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당신이 준비하신 곳으로 더 깊이 들어오도록 단련시키시는 영적 훈련이다.

한편 그녀의 어둠 체험은 영혼의 정화라는 측면에서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둔 밤과 공통점을 갖지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제시한 어둔 밤 체계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²³⁾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둔 밤의 체계는 감각의 능동적 밤과 영의 수동적 밤의 두 단계 체제를 제시하였지만 마더 테레사의 어둠 체험은 이러한 두 단계 체제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내용 면에서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둔 밤이 하느님과 한 영혼 간만의 배타적 관계에서 경험되는 영적 어둠이라면 마더 테레사의 어둠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웃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영적 어둠이었다. R. H. Smith는 그녀의 어둔 밤은 하느님과 일치에 이르는 내적 정화의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보다 큰 동화를 이루기 위한 치유의 어둠이자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를 위한 사랑과 비움의 실천적 어둠이었다고 평가했다.²⁴⁾

마더 테레사의 어둠 체험은 거창한 계시나 엄청난 비전에 둘러싸인 신비 체험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이라는 시련을 일상의 삶 안에서 단순한 믿음과 기도를 수반한 하느님에 대한 갈망으로 견뎌냈다. 어둠은 또한 그녀로 하여금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다가가 오랜 기간 겸손함으로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어둔 밤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자선의 불’로 철저히 정화시켜, 헌신을 향해 이끄는 단순한 믿음, 고통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 애덕 실천을 통한 자아실현, 그리고 완전한 기쁨

22) “하느님께서 사람을 이 어둔 밤에 두시어서 감성욕을 씻어 닦게 하심으로 어느 것에도 빠지거나 맞들이지 못하게 하심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어둔 밤』, 최민순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73, 1~9쪽.

23) Paul Murray O.P., 『어둠의 광채』, 신강용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2010, 44쪽.

24) Richard Upsher Smith, *op.cit.*, p.70.

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어둔 밤이 그녀의 영적 여정에 미친 기능적 작용인 동시에 그녀가 영적 어둠에 직면하여 보인 반응과 수용의 과정이기도 하다.

1. 헌신으로 이끄는 단순한 믿음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에서 한 영혼이 거룩한 삶과 선을 선호하고 천국을 대망하면서 일편단심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하느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확고해져야 가능할 것이다. 분명 믿음이야말로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부재가 역력히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 없이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또 교회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믿음으로 하느님을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마더 테레사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상실과 공허감 속에서도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사랑의 선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고자 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을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에 매료되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삶으로 변화시켰다. 그녀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신뢰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하느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은 의지와 희망의 미소가 오히려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하느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내적 메마름과 어둠이 지속되고 고통이 심해지자 마더 테레사는 어둠이 교만을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시련일 수 있다는 페리에 대주교의 권고에 따라 무엇보다 자신의 성급함을 성찰하며 기도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웠다. 차츰 그녀는 자신의 내적 메마름에 대한 성찰이 깊어짐에 따라 하느님 부재로 인한 고통이 하느님의 상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중한 관념의 상실임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인식 변화는 피카키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난다.

하느님께서는 제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계속 미소를 짓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²⁵⁾

마더 테레사는 내면의 삶이 힘들어질 때면, 언제나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분에게서 안식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가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의 시련을 대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들에 있다. 그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오히려 그분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²⁶⁾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고유한 영적 소명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미소²⁷⁾였다.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눈길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미소야말로 그녀가 평생 동안 보여준 특징이다. 그녀의 미소는 고통을 감추는 외투였고, 칙후 같은 어둠 속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자신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대처 방식들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무한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저에게는 현실의 모든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만이 저를 이끕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한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²⁸⁾

25)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66쪽.

26) Carol Zaleski, "The Dark Night of Mother Teresa", *First Things*, 133(2003), p.25.

27)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48쪽.

그녀는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믿음을 일상의 삶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신앙에 의해 살면서도 믿지 않는”²⁹⁾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곁으로 기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2) 사랑에 뿌리를 둔 굳센 의지

마더 테레사는 어떤 위안도 도움의 손길도 없는 가운데 하느님의 부재와 침묵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무력해진 열정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무력감에 빠져 주저앉아 있기보다 이러한 무력감에 맞서 하느님께 더 충실하고 계속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날마다 굳혔다. 그녀의 이러한 굳센 의지는 병들고 고통 받는 이들을 함께 돌보는 협력자들에게 보낸 격려 편지에서 엿볼 수 있다.

빈민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우리의 소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희생적인 삶은 잔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서원이 바로 그 잔이며 여러분의 고통과 우리의 일은 포도주와 티 없는 제병입니다. 우리는 같은 잔을 들고 하나가 되어 찬미하는 천사들과 함께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타는 목마름을 채워드려야 합니다.³⁰⁾

무력해진 열정을 대하는 마더 테레사의 의지는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판에 핀 하느님의 꽃”³¹⁾으로 남겠다는 강한 투신, 즉 사랑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1964년 1월 피카키 신부에게 쓴 편지에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된 그녀의 의지를 잘 드러낸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느님의 어둠과 함께이고 하느님의 고통과 함께이며 하느님을 향한 끔찍한 소망과 함께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28)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51쪽.

29)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87쪽.

30)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51쪽.

31)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3쪽.

사랑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로 묶인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제 마음은 저의 의지에 따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³²⁾

인간 의지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정화된다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처럼 그녀의 굳센 의지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영혼에 깊이 뿌리박힌 상처와 부족함을 근본적인 정화로 이끌었다.³³⁾

2. 고통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

마더 테레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독한 어둠의 내적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통해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과 비움을 거울삼아 진정한 가난과 처절한 자기부정의 영성을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며 살았다. 이러한 삶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무(無)의 길이며,³⁴⁾ 바로 하느님 이외 여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메마른 갈증을 겪었고, 당신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비움으로써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죄 지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다. 마더 테레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려고 노력했다.

32)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51쪽.

33) “애덕은 의지에 있어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정과 낙을 비우고 벗어던지게 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 최민순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71, 2쪽.

34) Juan Catret,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6, 24~27쪽.

1)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목마름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마더 테레사의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목마름처럼 그녀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체험이었다. 그녀는 사제들 및 협조자들에게 자주 간절한 기도를 부탁할 만큼 채워지지 않는 하느님을 향한 메마른 갈망에 고통스러워했다. 또한 그녀는 처음 목격한 캘커타의 비참한 현실³⁵⁾ 속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보았다.³⁶⁾ 이후 마더 테레사는 두 가지 목마름의 봉헌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였다. 즉, 하나는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목마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이었다.

어둠이 짙어지고 목마름의 고통이 한층 더 깊어졌을 때,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이 영적 소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2코린 12,7~10)을 통해 깨닫게 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성인의 서간을 통해 저에게 답을 주셨고, 신부님의 편지 역시 저에게 답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더욱 행복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만일 제가 성인이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인일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의 어둠에 빛을 밝히려 내려가 있을 테니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³⁷⁾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영적 목마름이 예수님과 그녀의 연결고리였으며,³⁸⁾ 하느님과의 일치 혹은 자신이 가야 할 자리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할 때까지 사랑의 불로 어둠과 누추한 곳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려는 굳은 결심을

35)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10쪽.

36)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15쪽.

37)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60~361쪽.

38)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9쪽.

세운다. 1979년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그녀의 이러한 인식과 결심을 엿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집 없는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외로운 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에 굶주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할 굶주림입니다.³⁹⁾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목마름과 인간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로 통합됨을 깨달았다. 마더 테레사는 목마름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난 동참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실천적 삶이어야 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나눔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어야 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2) 가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

마더 테레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며, 그분께 조그만 위안이라도 나누어드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했다.⁴⁰⁾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돕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고 가난을 실천하며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거친 식사를 하고, 값싼 객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로 휴먼지 속에서 매일 빈민가를 걸어 다니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했다.⁴¹⁾ 그녀는 젊은 수녀들을 교육할 때도 가난을 몸소 겪지 않고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는데 있어서 가난의 실천을 필수적

39)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55~456쪽.

40) E. Le Jolly, 『예수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변주나 옮김, 성신출판사, 1980, 160~162쪽.

41)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506쪽.

인 것으로 여겼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조차 느낄 수 없고,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할 때, 이러한 가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육신과 영혼으로 가난을 알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가난을 겪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⁴²⁾

생애 후반에 이르러 그녀는 현대 사회가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이라는 영적 가난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현대에 만연한 무관심과 관련된 고통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한 베로니카, 키레네의 시몬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다.⁴³⁾ 그만큼 현대 사회에 ‘외로움’이라는 질병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고,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고통이 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⁴⁴⁾ 실제적 가난의 실천을 통해서 어둠의 참의미와 자신이 받은 카리스마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었다.

3) 철저한 자기부정과 애덕 실천

마더 테레사는 하느님을 향한 절실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느낌, 외로움, 공허감, 하느님을 등진 것 같은 두려움 등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을 통해 철저한 자기부정의 정화과정을 겪었다. 자기부정의 길은 자신의 무능과 나약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당신 자신을 온전

42)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66쪽.

43) 1980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주교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마더 테레사는 ‘외로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지적했다.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63~464쪽.

44)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45쪽.

히 내어주시는 하느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녀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욕구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질까 봐 무척이나 두려웠다. 피카키 신부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에는 그녀의 이러한 두려움이 묻어난다.

신부님,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때에 하느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거절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지도 몰라 두렵습니다.⁴⁵⁾

이러한 반응은 하느님께서 왜 당신을 숨기시고 어둠 속으로 침잠하시는데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더욱 큰 불안으로 번져나갔다.⁴⁶⁾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과의 합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욕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하느님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취향마저도,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⁷⁾ 우리가 무질서한 취향과 사고방식,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는 순간, 이미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둠 속을 헤매고, 때때로 오류를 범하면서 점차 그녀는 자신이 작고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이 뜻하신 일을, 비록 그것이 지속되는 어둠일지라도 미소로 받아들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버리는 철저한 자기부정과 애덕실천이라는 절대적 투신 속에서 하느님의 겸손을 발견하는 신비를 맛보게 된다. 이 신비에 대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또 제가 얼마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지 감탄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제가 만나는 곳이었지요. 예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며, 예

45)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11쪽.

46) Phyllis Zagano & C. Kevin, “Embracing darkness: a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case study of Mother Teresa”, *Spiritus*, 10/1(2010), p.55.

47) “어느 것에 집착을 끊지 않는 영혼은, 비록 덕이 많다 할지라도 하느님과의 합일의 자유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 앞의 책, 1~4쪽.

수님의 아이인 저는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작습니다. 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와 제 주변에 계속해서 쏟아 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하시도록 합니다. ... (중략) ... 그래서 저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입니다.⁴⁸⁾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가진 것은 어둠, 외로움, 고통, 신앙과 사랑을 잃은 상실감과 공허감밖에 없다고 탄식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하느님의 현존은 완전했고 어둔 밤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수난을 나누는 각별한 은총을 갖게 되었다.⁴⁹⁾ 그녀는 어둠의 체험을 통해 “아주 작은 아이가 되어 가만히 서서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⁵⁰⁾ 온전한 신뢰와 단단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

3. 애덕 실천을 통한 의지의 청화와 자아실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진정한 애덕 실천에 수반하는 두 가지 사랑의 결실을 제시했는데, 하나가 능동적 의지로 애덕을 실천함으로써 무질서한 인간 본성을 극복하는 자아실현의 활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적 차원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불을 지펴 인간의 의지를 순수하게 만드는 하느님 사랑의 활동이다.⁵¹⁾ 마더 테레사가 그토록 질고 오래 지속된 내적 어둠을 겪은 이유는 분명 가난한 이들과의 보다는 큰 동화를 이루도록 이끄신 하느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녀의 어둠 속 깊이 들어와 침잠하심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기도와 철저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충실을 통하여 애덕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고 당신과 합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48)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25쪽.

49)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05쪽.

50)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46쪽.

51) 십자가의 성 요한은 애덕의 작용을 능동적 사랑과 수동적 사랑으로 설명했다. 『어둔 밤』 제2권과 『사랑의 산 불꽃』에서는 수동적 사랑에 중점을 두고 『가르멜의 산길』 제3권에서는 능동적 사랑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1) 항구한 기도

한 전기작가는 마더 테레사의 삶을 “기도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⁵²⁾ 걱정의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녀가 마주하는 빈민가의 현실은 고통 받는 사람들로 붐비는 전쟁터와 같았다. 이 상황에서 그녀의 기도는 하루의 삶과 활동을 준비시키고 유지시키는 생명의 원천이었다. 무엇보다 기도의 여정에서 예전처럼 어떤 위안과 만족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기도에 임했다. 함께 산 수녀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에 대한 확신으로 그녀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적 성사와 전례 기도에 충실했다.⁵³⁾ 기도는 “고통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해도 그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한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게 되는”⁵⁴⁾ 불굴의 신앙으로 희망을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실천적 도구가 된다.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뜬 마더 테레사는 수녀들과 사랑의 선교회를 돕는 협조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⁵⁵⁾

그녀의 기도는 1946년 다르질링행 기차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식별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였고, 사랑의 선교회 창립 준비 도중에 그녀를 압박했던 물리적 고통과 그녀를 향한 멸시와 비난, 오해와 두려움, 상실의 아픔과 같은 정신적 고통⁵⁶⁾을 견디게 하는 하느님

52) Lucinda Vardey, 『사랑의 등불 마더 테레사』, 황애경 옮김, 고려원미디어, 1996, 45쪽.

53)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5쪽.

54)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64쪽.

55) 마더 테레사,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앤터니 스톤 엮음, 이해인 옮김, 황금가지, 1999, 27쪽.

56)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212~214쪽.

의 사랑이었다. 기도는 불굴의 신앙으로 희망을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실천적 도구였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마더 테레사의 언급처럼, 기도는 그녀에게 영적 메마름을 건디어내게 하고 열렬한 신심을 복돋아 주어 하느님과 내적 일치, 지향의 일치로 덕행을 쌓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도구이며 일상의 실천이었다.

2) 철저한 순종

마더 테레사의 순종의 마음가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하느님께서는 진심어린 ‘예’를, 모든 이에게는 큰 ‘미소’를”이다.⁵⁷⁾ 그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도 철저히 ‘예’와 ‘미소’를 실천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단 하나의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녀의 해소될 수 없는 갈망이 빚어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발자취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에서 나온 것이다.⁵⁸⁾ 그녀의 순종은 마침내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하느님과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이는 마치 죄지은 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순종과 같다. 노이너 신부에게 보낸 다음 편지에서 그녀가 극한 영적 어둠 속에서 조차 어떤 순종의 자세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 몸과 마음, 영혼은 하느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분 사랑의 자녀인 저를 원하지 않는다며 버리셨습니다. 하느님의 처분에 따를 것.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느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에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어둠이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된다면, 아니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들뜬아 핀 하느님의 꽃이 되어 더없이 행복합니다.⁵⁹⁾

57)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41쪽.

58) A Nicolas, 『부르심과 응답』, 표동자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80, 55~63쪽.

59)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3쪽.

마더 테레사의 영성생활은 십자가 성 요한의 권고처럼, “하느님께 서는 수많은 일로 당신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순명과 복종을 더 좋아 하신다.”⁶⁰⁾에 충실한 것이었다. 사랑의 선교회 설립은 그녀의 눈물과 기도로 일궈낸 희생의 결실이었으며, 하느님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의 결과였다. 순종은 인간의 의지와 사랑을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신비의 행위이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도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순종의 덕이었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는 노이너 신부에게 보낸 글에서 “거리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물리적인 상황은 저의 영성생활과 예수님에 대한 제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해도 저는 이 상황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한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⁶¹⁾ 라고 순종의 덕을 보여주었다.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순종은 어둠이라는 내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실함으로 이끌었다.

3) 실천적 충실

창립자로서 49년 동안 사랑의 선교회를 이끌었던 마더 테레사는 항구한 신앙의 자세와 비범한 선교사목에 대한 열정으로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에게 실천적 충실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첫 부르심 체험 이후 단돈 5루피와 사리 하나만을 걸치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 나설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마주친 현실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너무나 비참했다. 마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믿지만 그 약속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참상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미사와 기도시간 외엔 개인생활을 가질 여유조차 없이 반평생을 매일 가난한 이들, 병자들을 돌보

60) 십자가의 성 요한, 『잠언과 영적 권고』,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4, 26쪽.

61)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64쪽.

는 일로 보냈다.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도 세계 여러 곳에 버림받고, 고통 받는 영혼들을 찾아 나설 정도로 그녀의 실천하는 충실성은 오랜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켈커타의 빈민가 오두막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는 그녀의 서거 당시 전 세계 15개국 85개 분원에 3,000명 이상의 수녀가 함께하는 큰 수도회로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마더 테레사 후임으로 사랑의 선교회 총장으로 선출된 M. 니르말라 조시 수녀는 마더 테레사가 55년 동안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마더가 혼자서 ...(중략)... 성화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략)... 마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더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⁶²⁾

마더 테레사가 외친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갈망하던 하느님이셨으며, 동시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신 그리스도였다. 하느님은 어둠 체험을 통해 그녀가 어둡고 누추한 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광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길 원하셨을 것이다.⁶³⁾ 그녀는 어둠 체험 속에서도 충실하게 소명을 실천함으로써 고통 받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어둠의 성녀가 되었다. 한 영혼이 갖게 된 온전한 충실함을 통하여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화됨을 보여주었다. 마더 테레사가 갈망했던 하느님 사랑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안에서 ‘비움’과 ‘사랑’의 실천적 충실을 통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62)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517쪽.

63)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506쪽.

4. 절대적 신뢰를 통한 완전한 기쁨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하여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항상 미소 속에 살려고 노력한 마더 데레사의 내면에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마치 그러한 기쁨이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어둠의 고통을 품어 안은 것처럼,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완전한 기쁨의 심연 사이를 오가며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전존재를 바쳤다. 영적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기쁨으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머물렀다. 그녀의 영성생활은 성화(聖化)의 길이 일상의 속인들로부터 벗어난 신비적인 합일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누추한 일상적 삶의 모습에서 크고 작은 고통과 갈등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전환시키는 완전한 기쁨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어둠 밤의 체험은 그녀를 자아수용과 겸손의 밤으로 이끌어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웃에 대한 나눔과 섬김을 가능케 하였으며 물질적·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함과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였다.

1) 쉼체성 인식을 통한 자아수용

마더 데레사는 어둠 체험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며 텅 비어 있는”⁶⁴⁾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처소가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노이너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 불완전함을 만나면, 고통이 생긴다”라고 말하며, “제 내면은 너무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불꽃이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⁶⁵⁾고 자기수용의 내적 변화와 그에 따른 고통을 고백했다. 메마른 밤의 고통스러운 인식의 과정을 통해 결실을 맺

64)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28쪽.

65)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99쪽.

는 자아수용은 이 고통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깨달음이기도 하다. 내면에서 겪는 하느님 부재의 체험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갈망하는 ‘찾음’의 역동성 안에서 그분의 더 큰 사랑을 깨닫는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성찰’과 ‘찾음’의 역동성은 인간을 기억, 지성, 의지를 넘어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 변화로 이끈다. 그녀는 자아수용을 통한 정체성 인식을 바탕으로 하느님이 자신 안에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과 영적 지도자들의 권고에서 깨닫게 된다. 다음의 1976년 미카엘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잘 나타나있다.

예수님은 저를 다정하게 걱정해주시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저는 텅 비어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저의 사랑은 아이와 같은 사랑임을 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⁶⁶⁾

인식의 변화로 그녀는 어둠으로 인한 무력감과 공허감에서 점차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어둠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뒤로 하고 하느님이 뜻하신 일에 절대적 신뢰로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였다. 이처럼 성령의 현존에 자아가 눈뜨면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더 깊은 가난과 겸손에 대한 갈망, 죽음에 대한 경외심,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타오르게 된다. 자아인식의 밤은 하느님 구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고, 어둠의 수용과 함께 영혼의 의지를 확장시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2) 이웃사랑으로 이끄는 검검과 나눔의 겸손

어둔 밤을 통한 영적 결실⁶⁷⁾로서 겸손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66)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35쪽.

67) “이 욕구의 밤의 메마름과 텅 빈에서 영혼이 뿜아내는 것이 또 있으니, 즉, 영성적 겸손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앞의 책, 1쪽, 6쪽.

하고,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자리로 함께 가려는 열린 마음으로 이끈다. 그래서 겸손은 영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인 동시에 타인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섬김과 나눔의 실천적 덕목이다. 마더 테레사의 겸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느님과 이웃 안에서 일체감을 이루었다. 하나는 하느님을 향해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맡기는 섬김의 겸손이었다. ‘하느님의 것’⁶⁸⁾인 사랑의 선교회는 하느님과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그녀의 깊은 갈망이 이끈 하느님의 뜻이었다. 그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사랑의 선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녀는 현실적·영적인 위기로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느님과 그녀가 만나는 정화와 변화의 시기였다.

마더 테레사가 보인 또 다른 겸손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한 나눔의 겸손이었다. 이웃을 향한 겸손은 자신을 버리는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같이 누추한 거리를 헤매고 거친 식사를 하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고통과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예수님을 섬길 때와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나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고 섬길 때,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느꼈다.⁶⁹⁾ 그녀가 보여주었던 가난한 이들과의 동화(同和)는 바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려는 겸손의 자세가 불러일으킨 성령의 열매였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어떻게 오랜 시간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일체를 이루며 그들 안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가졌다. 마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영적인 영감으로 가득 차 세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성녀의 삶으로 비춰지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한

68)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31쪽.

69)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10쪽.

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매일의 삶 속에서 큰 사랑으로 작은 것들을 선택하고 실천하고자 애썼던 아주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다. 하느님은 당신과 이웃을 향한 그녀의 지극한 겸손을 보시고 그녀를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지 점점 더 크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겸손이 없으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⁷⁰⁾

그녀가 자신의 온 존재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투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을 향한 섬김의 겸손이 생명의 물줄기를 타고 이웃을 향한 나눔의 겸손으로 타인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겸손이 이끄는 영성 실천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성령의 빛을 비추며,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영혼을 당신의 모상으로 변화시킨다.⁷¹⁾

3) 무소유와 부유함

마더 테레사는 일상의 삶 안에서 진정한 무욕(無欲)과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 그녀는 낡은 신발 하나로 외롭고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 흙먼지 속을 걸어 다녔으며, 종종 지치고 목마른 상태로 그들을 맞이 하였고, 선풍기조차 없는 작은 방과 성당을 오가며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마감했다.⁷²⁾ 그녀는 사방이 어둠과 침묵만이 존재하는 곳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⁷³⁾

70)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36쪽.

71) Alain Delaye, 『신앙의 신비』, 정대식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4, 65쪽.

72)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506쪽.

73)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452-453쪽.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희망을 붙잡고 기쁨으로 현대세계의 가장 깊은 빈곤으로 다가갔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물질적 무소유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마저도 버리는 영적 가난함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의 노이너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녀의 이러한 영적 가난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저는 요즘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풍성한 영적 삶이라는 기쁨을 절제하기를 원하시므로 저는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수녀님들이 그런 기쁨을 모두 누리도록 돕습니다. ... (중략) ... 저는 아무것도,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조차도 가지지 못한 기쁨만을 누리고 있습니다.⁷⁴⁾

그녀는 비록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부유함을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쇠약한 몸을 이끌고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찾아 다녔으며 수많은 시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다. 그녀는 하느님과 함께한다는 영적 부유함마저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갔다.

IV. 나가는 말

우리는 이 글에서 마더 테레사가 영적 어둠을 체험하면서 어떤 내적 메마름과 갈등을 겪었으며, 스스로 그것에 알맞은 삶, 어둠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삶을 살아낸 그녀의 내적 여정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어둠 밤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사랑이 되어야 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정화의 길이였으며, 동시에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희생의 길이였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74) 브라이언 콜로디척, 앞의 책, 375쪽.

그녀는 반세기를 실제적 가난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동화하며 비움과 사랑의 영성을 실천하며 살았다. 영적으로는, 하느님 부재 체험이 가져온 극심한 외로움의 고통을 견뎌야 했으며, 때때로 어둠에 짓눌려 끔찍한 의혹의 순간에 직면하는 두려움도 겪었다. 중국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정되고 사랑받는 소망마저도 비워야 하는 영적 가난도 수용하고 실천해야만 했다. 하느님 부재 체험과 상실의 고통을 겪으며 그녀는 마침내 어둔 밤의 고통이 마치 아기를 제 발로 걷기 시키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달았다. 하느님은 당신과의 내적 일치를 위하여 그녀의 삶을 ‘자비의 불’로 연소시켰을 것이다. 이 영적 단련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자유이며, 하느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보다 충실히 섬기기 위한 자유이고, 또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 충만한 자유이다.

마더 테레사의 어둠의 영성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그녀가 겪었던 어둠 체험은 하느님과 일치에 이르는 내적 정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둔 밤과 공통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가난한 이들과 보다 깊게 상호작용하고 동화하기 위한 치유의 어둠이자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를 위한 사랑과 비움의 실천적 어둠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그녀의 어둠 체험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둔 밤’의 범주를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담은 단순한 믿음과 기도로 어둠이라는 시련을 이겨냈고, 어둠은 그녀로 하여금 일상의 사소함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참된 겸손함으로 가난하고 버림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이끌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영성생활은 삭막하고 메마른 걱정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했고 행복했으며, 자유와 기쁨에 차 있었다. 이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깊은 갈망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마더 테레사의 어둠 체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둔 밤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통로이며, 이 통로를 통과하는 데는 거창한 계시나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단순한 믿음을 지켜내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녀의 어둔 밤의 여정은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메마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삶의 길을 보여준다.

우리는 아마도 마더 테레사가 겪은 것과 같은 어둔 밤을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삶이 무의미하고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고 비현실적으로 생각될 때,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허무하게 생각될 때 등과 같은 ‘작은 어둔 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 이러한 ‘작은 어둔 밤’을 마주하게 될 때, 마더 테레사의 어둠의 여정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계시나 거창한 희생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

참고 문헌

-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 최민순 옮김, 성바오로, 1993.
_____, 『어둔 밤』, 최민순 옮김, 바오로딸, 2012.
_____, 『사랑의 산 불꽃』, 방효익 옮김, 기쁜소식, 2009.
_____, 『잠언과 영적 권고』,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4.
- Catret, Juan,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6.
- Delaye, Alain, 『신앙의 신비』, 정대식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4.
- Kolodiejchuk, Brian(ed),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켈커타 성녀의 비밀 스텐 글(Come Be My Light)』, 허진 옮김, 오래된 미래, 2008; (영문) *Mother Teresa Come Be My Light: The Private Writings of the Nobel Prize Winner*. London: Rider, 2008.
- Le Jolly, E., 『예수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변주나 옮김, 성신출판사, 1980.
- Mother Teresa,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앤터니 스텐 엮음, 이해인 옮김, 황금가지, 1999.
- Murray, Paul O.P., 『어둠의 광채』, 신강용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2010.
- Nicolas, A., 『부르심과 응답』, 표동자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80.
- Vardey, Lucinda, 『사랑의 등불 마더 테레사』, 고려원미디어, 1996.
- Watts, Craig, 『마더 테레사: 어둠 속 믿음』, 안소근 옮김, 바오로딸, 2010.
- Coe, John H., “Musings on the Dark Night of the Soul: Insights from St. John of the Cross on a Developmental Spirit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4(2000), pp.293~307.
- Packer, James I., “Holiness in the dark”, *Crux*, 44/3(2008), pp.31~39.
- Smith, Richard Upsher, Jr., “‘Behold a Pale Horse’ Blessed Mother Teresa of Calcutta and the ‘Experience of Nothingness’”, *Logos. A Journal of Catholic Thought and Culture*, 16/1(2013), pp.70~82.
- Zagano, Phyllis & Kevin, C., “Embracing darkness: a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case study of Mother Teresa”, *Spiritus*, 10/1(2010), pp.52~75.
- Zaleski, Carol, “The Dark Night of Mother Teresa”, *First Things*, 133(2003), pp. 24~27.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마더 테레사의 내적 삶은 오히려 온통 ‘어둠’투성이었음이 최근 발간된 그녀의 편지들을 통해 알려졌다. 한마디로 그녀는 분명 ‘어둠의 성녀’였다.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 체험이 가져온 온갖 영적 어둠을 겪으며 하느님 존재에 대한 의혹, 상실의 외로움, 열정의 무력감, 천국에 대한 공허감 등으로 괴로워했다. 우리는 그녀가 겪은 어둠 체험의 진정한 모습과 그 영적 의미를 조명키 위해 마더 테레사의 서간 및 영적 조언자들의 증언에 나타난 영적 어둠 체험들과 그녀의 반응들을 분류하고 내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어둠 체험은 하느님께서 영혼의 영적 단련을 위해 내리시는 가톨릭 전통의 영적 ‘어둔 밤’의 은총이었다. 그녀의 어둠 체험은 영혼의 정화의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를 위한 사랑과 비움의 어둠, 가난한 이들의 치유를 위한 실천적 어둠이라는 점에서 십자가 성 요한이 제시한 어둔 밤 체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녀는 어둠 체험을 통하여 헌신을 향해 이끄는 단순한 믿음, 고통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 애덕실천을 통한 자아실현 그리고 완전한 기쁨의 영적 여정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어둔 밤이 그녀에게 기능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며 동시에 그녀가 그에 반응하고 수용해가는 모습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어둠 체험의 여정이 거창한 계시나 비전에 둘러싸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동거하며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실천적 여정이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마더 테레사의 어둠 체험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려진 영적 ‘어둔 밤’의 체험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통로였으며, 이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시나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단순한 믿음을 지켜내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주제어: 마더 테레사, 영적 어둠, 어둠의 성인, 어둔 밤, 십자가 성 요한, 하느님의 부재, 빈자의 어머니.



Mother Teresa's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Spiritual Darkness

■
Sim, Jong Hyeok

(Spiritual Theology ·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 Sogang University)

Kim, Kee Suk

(Spiritual Theology ·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 Sogang University)

We studied Mother Teresa's experiences of spiritual darkness as represented in her private letters and writings, and memoirs of her spiritual advisers. In her own words, she was "a saint of darkness". She dedicated her life to the poor and alienated in the slums of Calcutta; however, she revealed that she experienced lifelong spiritual darkness and suffering due to the feeling of God's absence in her life. She felt that God had abandoned her, and she experienced the powerlessness of her apostolic zeal and a sense of existential emptiness, which eventually drove her to doubt God's existence.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such a paradoxical life experience, we need to explore and classify her experiences of darkness and her reactions to them in the light of the theology of the "dark nights" of St John of the Cross.

Her experience of darkness was truly God's grace; it was not only the purifying darkness of the soul that led her to share Christ's Passion, but also the darkness of fulfillment that led her to dedicate her life to the service of the poor. In this respect, her experience of darkness is uniquely different from the teachings of John of the Cross. At the core of the spiritual journey of the innocent faith of Mother Teresa, there lay the experience of darkness, which enhanced her life of heroic service and her

dedication, in union with Christ's suffering. In order to reveal the functionality of this experience of darkness, our study focused on the experience and her diverse responses to this experience, as revealed in her writings. We emphasized the fact that her experience of darkness was not of a type of vision or revelation; rather, it was a daily journey of humble faith, of sharing God's love of and service to the poor, and of joining with Christ's Passion. In conclusion, Mother Teresa's experience of darkness was a God-given grace that illuminated the dark night of the soul and a path of hope to the infinite depth of God's mercy. We learned from her that in order to walk on this path, one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God's grand revelation or visions, but only the simple faith by which one practices the Christian virtue of charity — even in very small daily encounters with neighbors.

- ▶ Key words: Mother Teresa, spiritual darkness, saint of darkness, dark night, John of the Cross, absence of God, mother of the poor.

* 투고 접수: 2016. 06. 02.

심사 완료: 2016. 07. 11.

게재 결정: 2016. 07. 14.